

다문화 가정 유아 보육의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Supporting Strategies for Caring and
Teaching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현정환(Jung Hwan Hyun)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strategies that support multi-cultural children's development and adaptation in day care centers. The subjects were 61 young children, 49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550 Korean young children. The instruments utilized were the Sukemune-Hiew Resilience Test for parents and the Danaka Development Test for children. The statistical instruments used were the t-test and the Pearson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s. Our results indicated that : (1) In the case five or six years ol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anguage development lagged behind that of Korean children. (2) Social support systems were insufficient for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Our conclusions suggest that establishing strategies is necessary for not only supporting the linguistic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ut strategies aimed at supporting their parents in day care centers need to be developed.

Key Words : 다문화 가정 유아(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부모(parents), 레지리언스(resilience), 발달과 적응(development and adaptation).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나 외

국인 거주자의 증가, 국제결혼건수의 급증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국제결
혼가정의 경우는 그 증가율이 현저하여, 2007년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27-B00543).

¹⁾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 Jung Hwan,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101 Sosa Bon2-Dong, Buchon city 422-742, Korea
E-mail : jhhyun@stu.ac.kr

3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6년 현재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이 총 3만9천7백건으로 1990년 4천7백10건이었던 것에 비해 8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효진·최지선, 2007). 결혼의 형태는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 많으며, 2006년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 전체 국제결혼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 드물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학계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요구 등과 같이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연구(임경혜, 2004; 윤형숙, 2004; 신란희, 2005; 최금해, 2005),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이혜경, 2005), 다문화 가정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행이나 폭언, 경제적 학대 등의 문제를 제기한 연구(문순영, 2007) 등이 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내의 이런 문제는 대부분 부부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 이들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습적 폭력이나 성적학대, 인격모독과 같은 문제로 인해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가 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현정환^a·구차순, 2007).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언어문제가 자녀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정은희, 2004), 이로 인해 학습수행능력의 저하 문제를 제기한 연구(김갑성, 2006; 오성배, 2005)가 있다. 학령

기에 접어든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오성배(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이르게 되면 학습수준이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특히 국어 과목과 관련하여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도 발견할 수 있다. 조영달(2006)과 김병순(2007)의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학교에서 뒤처지고 이로 인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생활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발견할 수 있다(김병순, 2007; 윤갑정·고은경, 2006; 박미경, 2006). 이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문화 가정의 유아는 대체로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배회하거나, 이로 인해 혼자 놀거나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06년 4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품는 교육지원 대책’을 내놓기도 하였다(문순영, 2007 재인용). 그런데 이제까지의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대한 연구나 지원 프로그램,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 등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나 여성, 그리고 이들 자녀의 학교 적응이나 교육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유아의 보육문제를 다룬 연구나 지원 전략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2006년 정부발표에 의하면 일반가정의 보육시설이용은 56.8%인데 비해,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는 15.8%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김희선, 2007). 여기에는 보육료나 교육비의 부담

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집단생활의 부적응이나 또래 괴롭힘 등의 문제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2006)가 내놓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 소극적 행동, 정서 장애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들의 17.6%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문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실제적인 지원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육시설에서 이들의 보육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즉 이들의 발달이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얻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연구와 다른 점은 이제까지의 다문화 가정의 부모나 자녀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책에 관한 연구는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문화적 측면이나 복지적 측면의 접근이 많았지만, 본 연구는 심리적 측면에 대한 지원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가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는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발달적 측면에서의 지원전략이며,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전략이다.

먼저 다문화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적 측면의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이들의 발달 수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들의 발달이나 적응의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육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문제에서 발달적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

한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적 측면으로는 「언어 이해 능력, 언어 표현 능력, 집단 활동의 적응 능력, 사회적 규칙 준수, 친사회적·도덕적 수준」이라고 하는 5가지 발달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들 항목을 설정한 이유는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또래와의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지원전략의 수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아의 생활이 부모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의 전략으로 ‘레지리언스(resilience)’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레지리언스’란 ‘한 인간이나 집단, 커뮤니티가 역경을 초래하는 유해한 효과를 제어하거나 최소화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 능력’을 의미한다(Grotberg, 1995, 1998). 그러므로 ‘심리적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레지리언스’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용어는 1980년대 말경부터 심리적 외상(trauma)이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대응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이후 학대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심리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다(Cicchetti & Valentino, 2006; Prevatt, 2003; Egeland, Bosquet, & Chung, 2002). 이처럼 레지리언스가 인간이 심리적 외상에서

회복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심리 임상 장면에서도 내담자에 대한 심리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현은민·박혜영, 2004; Wilkes, 2002; Rutter, 1990).

심리적 측면의 지원 요소 가운데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지리언스라는 용어가 우리말로 '탄력성'이나 '회복력'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개념의 의미 전달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원어 그대로 표기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 즉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언어, 습관, 가치관, 종교, 차별, 육아 불안, 빈곤 등의 문제로 부적응 상태에 놓이기 쉬운 다문화 가정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적 지원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심리적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힘', 즉 '내적 적응력'이라고 하는 개념인 레지리언스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며, 자기효능감이나 적극적인 행동의 형성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레지리언스의 하위 인자는 다음 3가지의 인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otberg, 1995). 하나는 '사회적 지원'으로, 이것은 레지리언스를 촉진시키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즉 자신을 이해해주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의미한다. 둘째는 '자기 효능감'이며,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능력이나 감정, 욕구의 조절 및 억제 능력 등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성'이며, 인간관계에서의 친화력이나 협조 등 사회적 기능이나 스킬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레지리언스라고 하는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한국 사회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 즉 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체류 기간이라고 하는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 부모의 레지리언스라는 문제가 이들의 언어 능력 및 체류기간의 문제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에 관한 검토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전략을 세우는데 또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 부모의 레지리언스(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 사회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다문화 가정 부모의 레지리언스와 이들의 한국어 능력 및 체류 기간과의 관련성은 있는가?
- <연구문제 3>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5가지 발달 항목에 대해서 일반 유아와의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 49명(어머니 연령의 평균 32.9세, 표준편차 5.4 ; 아버지 연령의 평균 38.8세, 표준편차 9.3)이며, 조사 현재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자들이다. 다문화 가정 부

모의 출신 국가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캄보디아, 일본, 미국, 캐나다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34명(70%)은 한국인과의 결혼(모두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가정이었으며, 나머지는 외국인 부부 가정이다. 발달 검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61명(이 가운데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37명임), 비교 집단으로 설정된 일반 유아(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를 포함) 550명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가 이루어졌다.

2. 조사 방법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레지리언스에 대한 조사에서는 S-H식 레지리언스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어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떨어져 설문지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영어나 출신 국가 언어의 구사가 가능한 조사 협력자로부터의 도움을 받아 면접 조사의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유아에 대한 발달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일반 유아의 경우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에게 발달 검사지를 배포하였으며, 해당 유아의 부모로부터 자녀의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어로 된 발달 검사지의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다문화 가정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담임교사와 해당 출신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있는 조사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의 발달수준을 평가하였다.

3. 조사 도구

1) 레지리언스

본 연구는 레지리언스 검사 도구로 S-H식 레지리언스 검사 도구(Sukemune-Hiew Resilience Test)를 사용하였다. 레지리언스 검사는 현재 의

국에서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S-H식 레지리언스 검사는 일본의 발달심리학자 스케무네와 휴가 아시아용으로 2008년에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검사 도구이다. 이 척도는 레지리언스의 3가지 하위 인자(편의상 A, B, C)를 측정하는 27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A인자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지원이나 협력의 정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인자명은 ‘사회적 지원’이라 명명한다(A인자에 속하는 질문 항목은 총 12개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가족 이외에 당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B인자는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지 등의 정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내용으로 인자명은 ‘자기 효능감’이라 명명한다(B인자에 속하는 질문 항목은 10개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이제부터 하는 일이 힘들 거라고 예상되더라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까?). C인자는 타인과의 관계형성에서 친화성이나 협조성의 정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자명은 ‘사회성’이라 명명한다(C인자에 속하는 질문 항목은 총 5개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맞게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까?).

본 검사 도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검증받았다. 먼저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각 질문 항목이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A인자(사회적 지원)의 계수는 0.85, B인자(자기 효능감)는 0.81, C인자(사회성)는 0.77로 각각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한편 타당

<표 1> 레지리언스 판정표

남성				판정	여성			
A인자	B인자	C인자	합계		A인자	B인자	C인자	합계
52 이상	40 이상	20 이상	108 이상	높음(H)	55 이상	38 이상	21 이상	110 이상
51~44	39~33	19~16	107~95	보통(M)	54~48	37~32	20~17	109~98
43 이하	32 이하	15 이하	94 이하	낮음(L)	47 이하	31 이하	16 이하	97 이하

성의 검토는 다음과 같이 검증받았다. ‘레지리언스’란 심리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안이나 우울 등과 같은 부적응을 나타내는 개념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여기에서 병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반적 건강의 정도를 측정하는 GHQ, 자각적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STAI-I, 자각적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STAI-II, 조울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SDS의 4가지 심리척도와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각각 모두 $p < .01$ 수준의 유의미한 부의 상관계수가 인정되었다. 또한 레지리언스의 3가지 하위 인자와 이 4가지의 심리척도와의 사이에도 모두 유의미한 부의 상관계수가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본 검사 도구는 심리적 회복력을 나타내는 내용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S-H식 레지리언스 심리척도는 피검사자의 레지리언스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레지리언스의 평가 기준은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남녀에 따라 그 기준이 각각 다르며, 동시에 피검사자의 레지리언스의 수준을 「높음(H), 보통(M), 낮음(L)」이라고 하는 3가지 기준을 갖고 판정하고 있다. 또한 이 표는 판정 기준이 되는 각 레벨의 점수 범위를 A, B, C인자별로 제시하고 있다.

2) 발달검사

유아의 발달 검사는 일본 다나카 연구소가 아

시아용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아용 발달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발달 척도는 12가지의 발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시설에서의 적용이라고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가지 발달 항목을 추출하여 조사, 검토하였다. 5가지의 발달 항목은 ‘언어 이해 능력’, ‘언어 표현 능력’, ‘집단 활동의 적응’, ‘사회적 규칙 준수’, ‘친사회적 및 도덕적 수준’이다. 각 발달항목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질문의 수와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언어 이해 능력(이하는 ‘언어 이해’)은 17개의 질문(예, “주스와 컵을 갖고 와”라고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의 요구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으로, 언어 표현 능력(이하는 ‘언어 표현’)은 15개의 질문(예, 간단한 내용이라면 틀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다), 집단 활동의 적응(이하는 ‘집단 적응’)은 12개의 질문(예, 어린이집을 싫어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으로, 사회적 규칙 준수(이하는 ‘사회적 규칙’)는 13개의 질문(예, 쓰레기나 휴지는 자기 스스로 휴지통에 넣는다)으로, 친사회적 및 도덕적 수준(이하는 ‘도덕성’)은 13개의 질문(예, 자기보다 어린 아이가 고집을 부리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해서 4점 리커트 척도(전혀 할 수 없다 1점~잘 할 수 있다 4점)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다문화 가정 부모의 레지리언스

성 별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		사회성		합계	
	평균	판정	평균	판정	평균	판정	평균	판정
어머니(n=29)	46.5	L	36.4	M	17.6	M	100.5	M
아버지(n=6)	44.7	M	36.8	M	17.1	M	98.6	M

주) 판정 기준은 <표 1> 참고

III 결과 분석

1. 부모의 레지리언스에 대한 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 49명 중,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록 누락 등으로 불완전한 반응을 보인 경우를 제외한 결과, 유효 데이터는 35명이었다. 이들의 레지리언스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각 질문 항목에 대한 반응을 득점화(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하여 3인자 별로 그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그 평균치를 S-H식 레지리언스의 3단계 판정 기준(높음-H, 보통-M, 낮음-L)에 따라 각각 평가를 하였다. 성별에 따른 레지

리언스의 평균치와 판정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판정 결과를 보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경우, 레지리언스의 합계 점수에서는 보통 수준의 레지리언스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인자별 분석에서는 자기 효능감 및 사회성은 평균 범주에 속하는 수준이지만, 사회적 지원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버지의 경우는 합계 점수와 인자별 분석에서 모두 평균 범주에 속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어 능력과 레지리언스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어 실력을 묻는 질문에 대한 3가지 반응(잘 한다, 보통이다, 잘 못한다) 별로 레지리언스를 구했다. 그 결과,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경우에 레지리언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표 3> 한국어 실력에 따른 다문화 가정 부모의 레지리언스

한국어 능력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		사회성		합계		
	평균	판정	평균	판정	평균	판정	평균	판정	
어머니	상(n=4)	50.3	M	37.7	M	17.0	M	105.0	M
	중(n=18)	47.2	M	37.4	M	18.3	M	102.9	M
	하(n=7)	42.0	L	36.3	M	16.8	M	95.1	L
아버지	상(n=4)	48.0	M	39.3	M	17.5	M	104.8	M
	중(n=2)	36.0	M	30.0	L	15.0	L	81.0	L
	하(n=0)	-	-	-	-	-	-	-	-

주) 상-한국어를 잘 한다, 중-보통이다, 하-잘 못한다.

<표 4> 체류 기간에 따른 다문화 가정 부모의 레지리언스

체류 기간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		사회성		합계		
	평균	판정	평균	판정	평균	판정	평균	판정	
어머니	단기(<i>n</i> =13)	48.2	M	36.8	M	17.9	M	102.9	M
	장기(<i>n</i> =16)	45.8	L	36.1	M	17.9	M	99.8	M
아버지	단기(<i>n</i> =2)	48.1	M	39.3	M	12.0	L	99.4	M
	장기(<i>n</i> =4)	43.5	M	33.5	M	16.5	M	93.5	L

나타났다. 하위인자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 효능감이나 사회성에서는 평균 범주에 속하는 수치를 보였다. 아버지의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보통이다’고 응답한 경우에 레지리언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인자분석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사회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국어 실력 차이에 따른 레지리언스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35명 전체를 대상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치=1.54, *n.s.*). 각 인자별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사회적 지원 F =1.78, *n.s.*; 자기 효능감 F =1.52, *n.s.*; 사회성 F =1.35, *n.s.*).

한국 체류기간과 레지리언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체류기간을 상대적 의미에서 단기와 장기로 분류하였다. 집단의 구분은 이들의 한국 체류 기간(최소1~최고 15년, 평균 6.46년, 표준편차 3.03)과 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체류 기간이 5년 이하의 경우는 단기 집단으로, 6년 이상의 경우는 장기 집단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각 집단별로 레지리언스를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경우, 전체 레지리언스에서는 평균 범주에 속하지만, 하위인자분석에서는 장기 체류자의 경우가 사회적 지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는 장기 체류자가 레지리언스의 합계가 낮은 수준의 범주에 속하는 수치를 보였다.

한편 체류 기간의 차이에 따른 레지리언스의 차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두 집단의 레지리언스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값=.50, *n.s.*). 인자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단기 집단과 장기 집단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사회적 지원 t 값=1.51, *n.s.*; 자기 효능감 t 값=.34, *n.s.*; 사회성 t 값=-.98, *n.s.*).

2.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분석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각 질문에 대한 반응을 득점화(전혀 할 수 없다-1점, 그다지 할 수 없다-2점, 대체로 할 수 있다-3점, 잘 할 수 있다-4점)하였다. 그리고 5가지 발달항목의 각각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 유아와 일반 유아와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연령별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세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 14명과 비교 집단으로 설정된 일반 유아 34명의 발달 수준과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집단 활동과 사회 규칙 준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그 차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유아가 일반 유아보다 오히려 집단 활동의 적응과 사회적 규칙의 준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세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 14명과 일반 유아 150명의 발달 수준과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5, 6세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 9명과 일반 유아 366명의 발달 수준과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이해와 언어 표현 항목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그 차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유아가 일반 유아보다 언어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발달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언어 능력과 다른 발달 항목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영아 24

<표 5> 3세의 발달 수준에 대한 검증 결과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집단 활동	사회 규칙	도덕성
	<i>M (SD)</i>	<i>M (SD)</i>	<i>M (SD)</i>	<i>M (SD)</i>	<i>M (SD)</i>
다문화 아동(<i>n</i> =14)	2.85(0.36)	3.08(0.82)	3.29(0.44)	3.41(0.34)	2.75(0.46)
일반 아동(<i>n</i> =34)	2.74(0.46)	2.82(0.59)	2.89(0.63)	2.99(0.65)	2.64(0.65)
<i>t</i> 값	0.79	1.22	2.16*	2.30*	0.57

주) *n*=아동 수, *M*=평균치, *SD*=표준편차, **p*<.05

<표 6> 4세의 발달 수준에 대한 검증 결과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집단 활동	사회 규칙	도덕성
	<i>M (SD)</i>	<i>M (SD)</i>	<i>M (SD)</i>	<i>M (SD)</i>	<i>M (SD)</i>
다문화 아동(<i>n</i> =14)	3.16(0.53)	3.35(0.72)	3.43(0.73)	3.38(0.70)	2.86(0.69)
일반 아동(<i>n</i> =150)	3.06(0.39)	3.35(0.44)	3.23(0.46)	3.36(0.43)	2.92(0.54)
<i>t</i> 값	0.86	0.02	1.50	0.17	-0.41

<표 7> 5, 6세의 발달 수준에 대한 검증 결과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집단 활동	사회 규칙	도덕성
	<i>M (SD)</i>	<i>M (SD)</i>	<i>M (SD)</i>	<i>M (SD)</i>	<i>M (SD)</i>
다문화 아동(<i>n</i> =9)	3.25(0.30)	3.42(0.48)	3.50(0.46)	3.75(0.21)	3.02(0.44)
일반 아동(<i>n</i> =366)	3.53(0.39)	3.67(0.35)	3.57(0.40)	3.66(0.39)	3.31(0.47)
<i>t</i> 값	-2.20*	-2.07*	-0.53	0.72	-0.81

**p*<.05

<표 8> 언어 능력의 차이에 따른 검증 결과

언어 능력	집단 활동	사회 규칙	도덕성
	<i>M (SD)</i>	<i>M (SD)</i>	<i>M (SD)</i>
높은 집단(<i>n</i> =26)	3.68(0.39)	3.70(0.33)	3.07(0.47)
낮은 집단(<i>n</i> =35)	2.51(0.76)	2.64(0.76)	2.14(0.68)
<i>t</i> 값	7.20**	6.67**	6.03**

***p*<.01

명도 포함된 전체 데이터 6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언어 능력(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과 다른 3가지 발달 항목(집단 활동, 사회 규칙, 도덕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언어 능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균치를 구한 결과, 평균치가 3 이상은 언어 능력이 높은 집단(26명, 평균 3.51, 표준편차 0.30)으로, 평균치가 3 미만은 낮은 집단(35명, 평균 2.15, 표준편차 0.63)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집단 간 발달 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능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집단 활동, 사회 규칙, 도덕성의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발달 상태를 보여주었다. 한편 일반 아동도 포함된 전체 611명의 데이터로 5가지의 발달 항목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항목 간에 유의미한 관련

성이 인정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가정 유아 보육의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얻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와 시사점, 그리고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연구문제 1>의 검토를 위해 다문화 가정 부모의 레지리언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레지리언스의 수준은 보통 범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인자별 분석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지원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레지리언스를 유지하고 강화시켜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원체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

<표 9> 각 발달 항목간의 상관계수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집단 활동	사회 규칙	도덕성
언어 이해		.89**	.88**	.86**	.84**
언어 표현			.82**	.84**	.78**
집단 활동				.89**	.91**
사회 규칙					.89**
도덕성					

***p*<.01

은 곧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거나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경우,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지 않은 것은 대개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어머니와는 달리, 직장 생활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 체계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연구문제 2>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레지리언스를 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체류 기간과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한국어 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면 한국어를 ‘잘 못한다’라고 응답한 어머니의 경우에 사회적 지원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한국어 능력의 차이에 따른 레지리언스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곧 다문화 가정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이들의 레지리언스는 그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부모의 체류 기간과 레지리언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체류 기간의 차이에 따른 레지리언스의 차이에 대한 검토에서도 두 변인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 3>의 검토에서 3, 4세의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은 일반 유아와의 비교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3세는 다문화 가정의 유아가 일반 유아에 비해 집단 활동의 적응과 사회적 규칙 준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 6세의 분석에서는 언어발달의 경우, 다문화 가정 유아의 수준이 일반 유아에 비해 떨어졌다. 이상의 결과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유아라고 해서 모두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언어 문제는 유아기 후기에는 3, 4세 때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력이나 높은 수준의 문장력과 언어 이해력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는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 환경의 문제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를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언어 문제는 <표 8>과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적응행동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1, 2, 3>에 대한 검토 결과, 금후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 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립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 부모의 레지리언스의 문제는 한국어 능력이나 체류 기간의 문제와는 그 관련성이 적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심리적 측면을 의미하고 있다. 즉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는 다문화 가정 부모에 대한 교사의 상담자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관심이나 이해, 상담과 같은 역할이 다문화 가정 부모의 유아 불안의 해소나 자신감 형성, 한국생활의 적응 등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현정환(2008b)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언어의 문제는 연령 증가와 함께 더욱 중요해지며, 또한 이 문제는 다른 적응 행동과도 관련성이 깊고,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 항목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발달 지원 전략보다도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의 문제는 종래의 연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었고, 이에 대한 교육 내지 지원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갑성, 2006; 오성배, 2005; 정은희, 2004).

셋째, 다문화 가정 유아는 거의 모두 언어 문제나 부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견해는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아이들의 세계는 이질적인 환경에서도 각자 나름대로의 순응성내지 적응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전략을 세울 때는 다문화 가정 유아라고 하는 카테고리만 보지 말고, 각 개개인의 발달과정과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아이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결론적으로 보육시설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문제에 대한 지원전략으로는 다음 3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보육교사가 먼저 능동적으로 다문화 가정 부모에게 다가가 보육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지, 정보제공 등 상담자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사실, 언어 발달에 대한 지원은 다른 발달 지원보다 그 전략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 수준은 개인적 변인에 따라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석과 이에 맞는 지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문제점 내지 한계점을 제시하고,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확보가 쉽지 않았

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일반화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데이터 일반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다문화 가정 부모의 경우는 한국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의 문제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정확히 이해를 하고 반응을 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부모 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실제 분석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데이터는 35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질문의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문화의 부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의 설문지와 조사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의 발달수준에 대한 것들 이들 부모로부터의 평가를 토대로 분석, 검토하였다. 이렇게 하면 부모들의 주관적 판단 기준의 문제, 즉 부모들이 각각 나름대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아의 행동이 집에서의 행동과 어린이집에서의 행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좀 더 객관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로부터의 평가만이 아니라, 교사로부터의 평가, 제3자의 행동관찰을 통한 평가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조사 시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만일 경제적인 문제나 아이의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지 않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한다면 부모

의 레지리언스나 유아의 발달 수준이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금후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문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유아를 대상으로도 연구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부모들의 문화적 배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보육문제는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이런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 또한 이들의 심리적 특성, 가족의 협력 정도, 종교적 배경, 자녀의 발달 수준, 사회적 지원 체제 등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져야 하며, 또한 다문화 가정의 보육 문제를 좀 더 전체적이고 시간적으로도 조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접근을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보육 문제를 획일적, 부분적, 현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체적인 접근과 다양한 시각,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역동적 변화라고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60.
- 구효진·최지선(2007). 열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병순(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2005).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103, 47-72.
- 김희선(2007).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분석. 한국민족연구원. **현대의 다문화가족**, 50-86.
- 김희태(2001).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문화의 의미. **영유아보육연구**, 7, 1-15.
- 김희태·권영덕(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교원인적자원부(2006). 보고서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대책, 1-27.
-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 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2(1), 109-142.
- 박미경(2006).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신란희(200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여성가족부(2007).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 www.mogef.go.kr.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2007).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의 실태에 대한 모색. **인간 연구**, 제12호.
- 윤갑정·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147-168.
-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 사회학회 · 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연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경기도 : 한울 아카데미, 321-349.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 최금혜(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24.
- 한건수(2006). 이주 노동자 자녀의 한국 생활과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4), 195-243.
- 현정환(2008a). 영유아기의 다문화 교육연구의 동향과 과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논총**, 19, 423-447.
- 현정환(2008b). 보육시설이용 다문화 가정부모의 보육에 대한 기대 및 문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8(4), 31-47.
- 현은민 · 박혜영(2004). 시설보호 아동 ·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Cicchetti, D., & Valentino, K. (2006). An ecological-transactional perspective on child maltreatment : Failure of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and its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Vol. 3. Risk, and disorder, adaptation* (2Ed. pp.129-201). NJ : John Wiley & Sons.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Egeland, B., Bosquet, M., & Chung, A. L. (2002).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maltreatment : Implications for breaking the cycle of abuse. In K. Browne, H. Hanks, P. Stratton, & C. E. Hamilton (Eds.), *Early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pp.217-232). Chichester, England : Wiley.
- Grotberg, E. (1995). *A guide to promoting resilience in children : Strengthening the human spirit*. The Hague, Netherlands : The Bernard van Lee Foundation.
- Grotberg, E. (1998). I am, I have, I can : What families worldwide taught us about resilience. *The Community Circle of Caring Journal*, 3, 36-39.
- Prevatt, F. F. (2003). The construction of parenting practices in a risk and resiliency model of children's adjustmen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69-480.
- Rutter, M. (1990). 'Some focus and process considerations regarding effects of parents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0-67.
- Seifer, R., & Dickstein, S. (1993). 'Parental mental illness and infant development', in C. H. Zeanah (ed.), *Handbook and Infant Mental Health* (New York : Guilford Press).
- Wachs, T. D., & Weizmann, F. (1992). 'Prenatal and genetic influence upon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 E. Walker and M. C. Roberts (eds), *Handbook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New York : Wiley).
- Wilkes, G. (2002). Abused child to nonabusive parent : Resilience and conceptual chang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3), 261-276.

2009년 10월 31일 투고, 2010년 1월 2일 수정
2010년 1월 7일 채택